

# 글로벌 ETF 시장 현황 및 수수료 비교 분석

Derivatives Analyst 이중호 02-3770-3482 leejh@myaseet.com

최광현 02-3770-3483 ckspazio@myaseet.com

R.A 윤선일 02-3770-3484 yoonsunil@myaseet.com

## Summary

-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ETF 산업은 1,677개의 ETF 와 자산 규모 7,000 억 US\$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세계 43개 거래소에서 총 3,009개의 ETF 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ETF 투자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다른 펀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더불어 높은 운용 성과이다. 국내 ETF 의 역사가 아직은 길지 않아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 국내 ETF 의 수수료는 글로벌 ETF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전체 수수료 평균은 0.45%로 동일하였다.
- 미국과 전반적인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수수료의 고/저 폭이 작고 증권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데 대한 프리미엄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였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증권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의 기복이 심하였고 고정된 비중식의 ETF 에 조금은 과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과거 외국 ETF 에 비해 국내 ETF 의 수수료가 비싸고 그 성과가 명확하지 못해 투자대상으로써의 선택이 어렵다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이며, 국내 투자자 역시 국내 ETF 를 선택하는데 있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 목차

1. 글로벌 ETF 자산 규모 및 투자 비중
2. 미국과 한국의 ETF 자산 규모
3. 전세계 ETF 수수료(Fee) 비교
4. 미국과 한국의 주식형 ETF 수수료 비교
5. 결론 - 국내 ETF 경쟁력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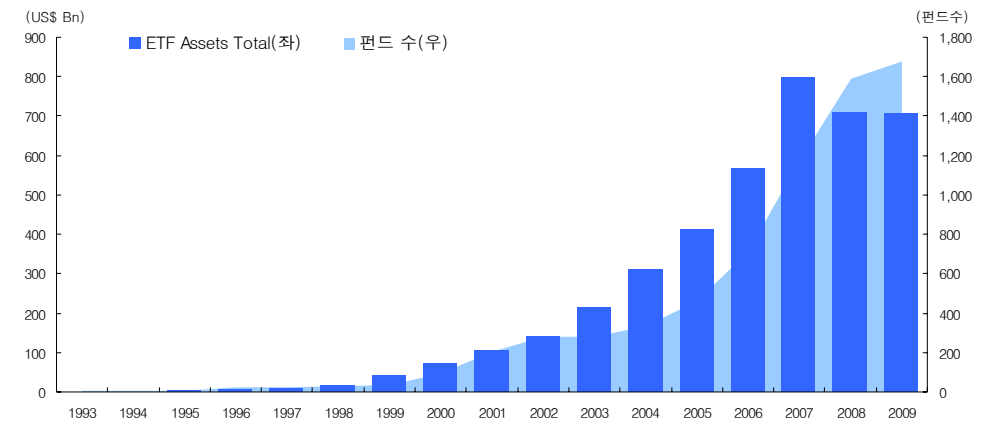
### 1. 글로벌 ETF 자산 규모 및 투자 비중

2008년 하반기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에도 ETF에 대한 열기는 식을줄 몰랐다.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ETF 산업은 1,677개의 ETF와 자산 규모 7,000억 US\$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세계 43개 거래소에서 총 3,009개의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상장 거래 ETF 수가 전체 ETF 수보다 많은 이유는 동시상장의 원인 때문).

이런 ETF 산업의 발전은 단기간에 눈부신 성과로써 저렴한 수수료 체계 및 손쉬운 접근성, 자연스러운 포트폴리오 구축 효과 및 다양한 투자대상으로의 기초자산 확대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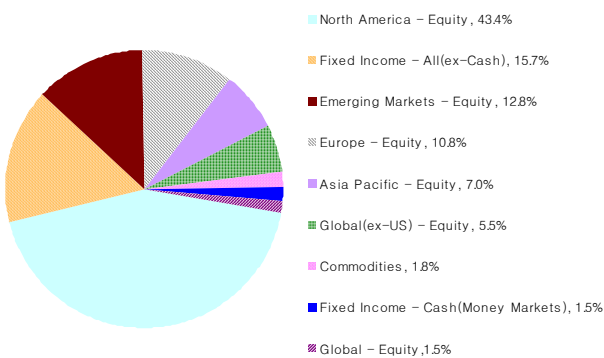
현재 글로벌 ETF의 투자 지역 및 상품별 비중을 보면 북미 지역 및 증권(Equity)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압도적 다수이며, 그 비중은 43.4%에 달한다.

글로벌 ETF 자산 규모 및 펀드 수 (2009년 4월까지)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글로벌 ETF 투자 지역, 상품별 비중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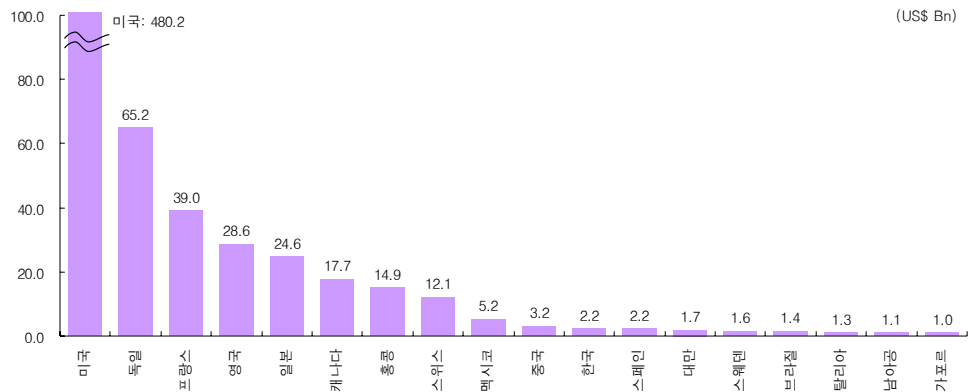
글로벌 ETF 투자 지역, 상품별 비중

REGION OF EXPOSURE(지역)	# ETF	TOTAL LISTINGS	AUM (US\$ Bn)	TOTAL(%)
North America - Equity	476	654	306.61	43.4
Fixed Income - All(ex-Cash)	183	339	111.29	15.7
Emerging Markets - Equity	246	499	90.14	12.8
Europe - Equity	365	793	76.00	10.8
Asia Pacific - Equity	141	235	49.18	7.0
Global(ex-US) - Equity	61	66	38.53	5.5
Commodities	49	107	12.96	1.8
Fixed Income - Cash(Money Markets)	16	32	10.86	1.5
Global - Equity	98	242	10.69	1.5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국가별 ETF 규모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확인되는데,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TF 자산 규모는 4,802억 US\$로 2위인 독일에 비해 7배나 많은 수준이다. 또한 유럽 전체의 ETF 자산 규모인 1,514억 US\$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많다. ETF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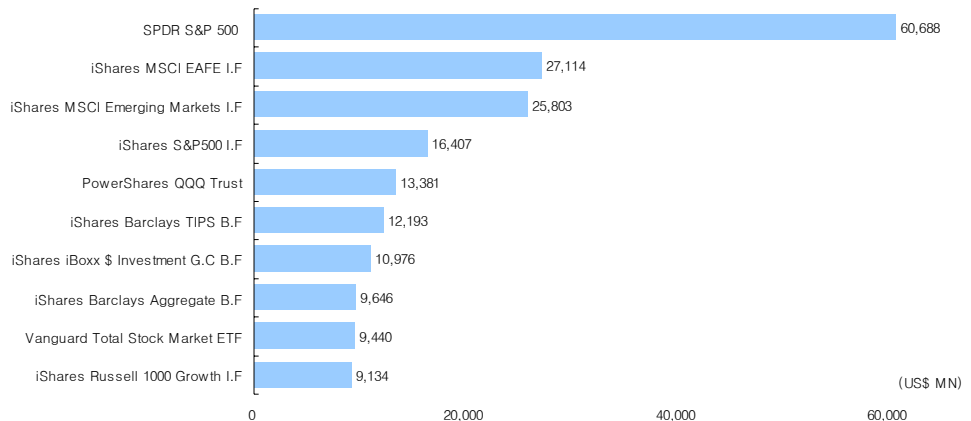
국가별 ETF 규모 (2009년 4월까지)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이런 이유로 인해 글로벌 ETF 중 Top 10 ETF는 모두 미국 ETF들이 차지하였다. 가장 규모가 큰 ETF로는 SPDR사의 S&P500 ETF로 그 규모가 600억 US\$에 달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Top 10중에서 채권관련 ETF도 3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두 iShares 자산운용의 상품들로서 각각 물가연동국채(TIPS), 회사채(Corporate Bond), 채권시장총계(Aggregate Bond)등을 대상으로 하는 ETF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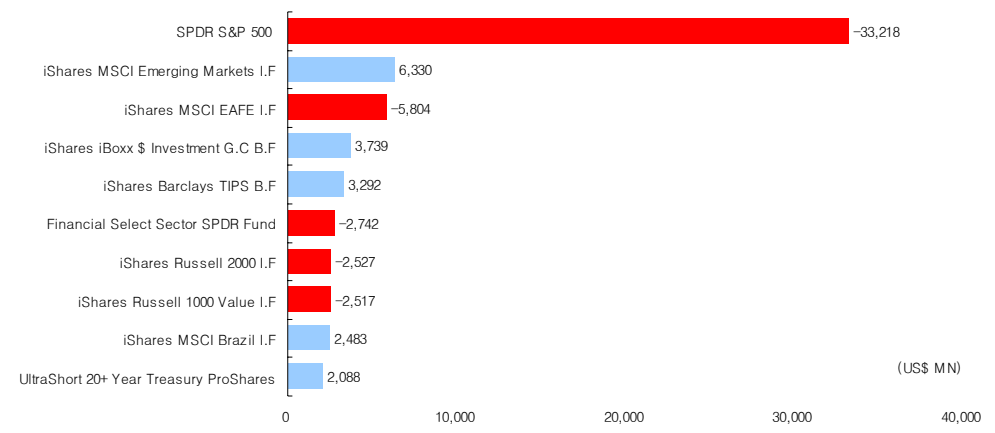
글로벌 ETF 자산 순위 TOP 10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주: I.F(Index Fund), B.F(Bond Fund), G.C (Grade Corporate)

한가지 특이점은 최근 Top 10 ETF 들의 자산 증감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수형펀드(Index fund)에서 이머징 마켓 및 채권형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다. 2008년 말부터 4월 말까지의 ETF 자산 증감을 살펴보면 지수형, 금융섹터, 중형주지수형 등의 ETF 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 회사채, 물가연동국채, 특정국가지수형 등의 ETF 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 및 상대적인 달러약세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ETF 시장 내에서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볼 수 있다.

ETF 자산 증감 ( 2008년 12월 ~ 2009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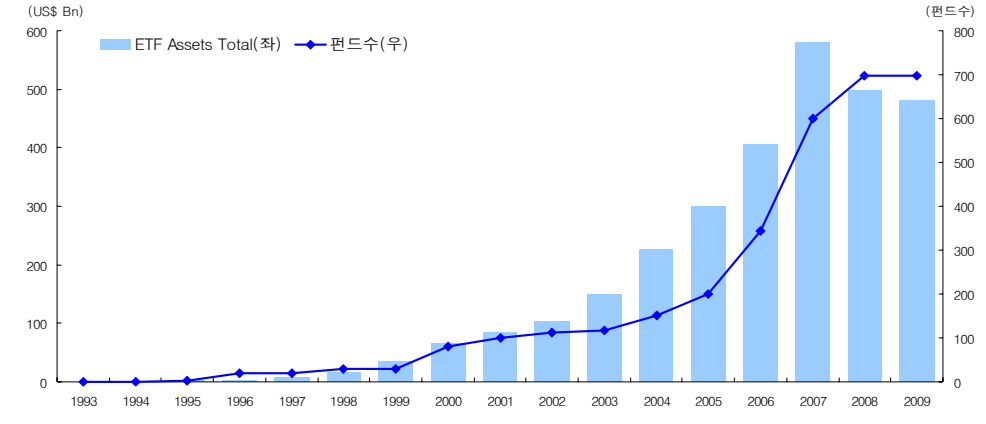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주: I.F(Index Fund), B.F(Bond Fund), G.C (Grade Corporate)

## 2. 미국과 한국의 ETF 자산 규모

전세계에서 미국 ETF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65%를 상회하고 있다. 증권(Equity)에 해당되는 부분은 43%대지만, 채권(Bond) 및 실물상품(Commodities)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ETF 와 비슷하지만 형태가 펀드는 아닌 ETP (Exchange Traded Products)의 성장도 괄목할만한 수준이다(주: Barclays 는 ETP 시장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설정 규모 600억 US\$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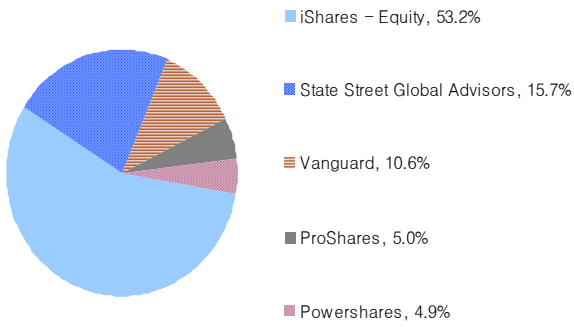
이런 추세는 미국 내 신규 설정되는 ETF 의 숫자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07년 190개를 정점으로 최근 2~3년간 급증하는 추세이다(2008년 161개를 기록하였으나 48개의 설정 폐지 숫자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실제 신규 숫자는 더 크다). 또한 향후 설정하려고 계획중인 ETF 의 3/4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9년 4월 기준 미국 : 612개).

미국 ETF 자산 규모 (2009년 4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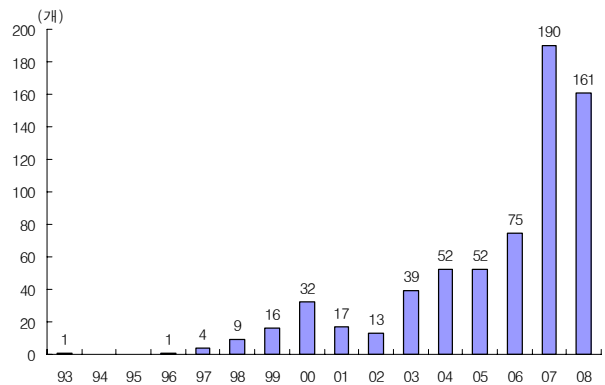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loomberg, Barclays Global Investors

미국 ETF 운용사 비중 (설정액 기준) (2009년 4월까지)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arclays Global Investors

미국 신규 ETF 설정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현 상황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자산운용사별 시장 점유율 이다. 미국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용사는 iShares 로 무려 53.2%에 달한다. 두번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SgA 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SSgA 는 15.7% 기록). 중요한 점은 전세계 ETF 시장에서 65%가 넘는 비중을 갖고 있는 미국 ETF 시장 내에서 단 하나의 운용사가 절반이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ETF 의 낮은 수수료 체계 등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 수준에서 오는 혜택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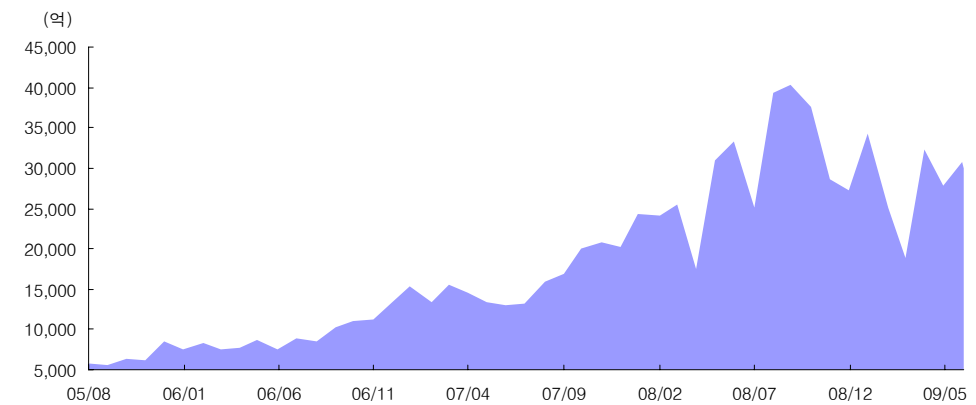
국내 ETF 시장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시가총액 기준 3.5조원 수준으로 최근 급성장을 이뤄오고 있다. 인덱스펀드 규모가 8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것에 비하면 약 절반정도의 인덱스형 펀드가 ETF 형태라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준에 있어 부침은 있지만 현재 38개 ETF 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최근 개발된 실시간 국고채지수(MKF TBI)도 ETF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호재이다. 국고채 지수를 통한 채권 ETF의 상장이 가능한 것이다. 보통 채권은 거래 금액 단위가 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았던 대상이었는데, 채권지수 발표로 채권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물론 향후 채권 ETF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채권 ETF의 상장은 국내 ETF 시장 규모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국내 ETF 시장 규모 증가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또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달성은 곧 ETF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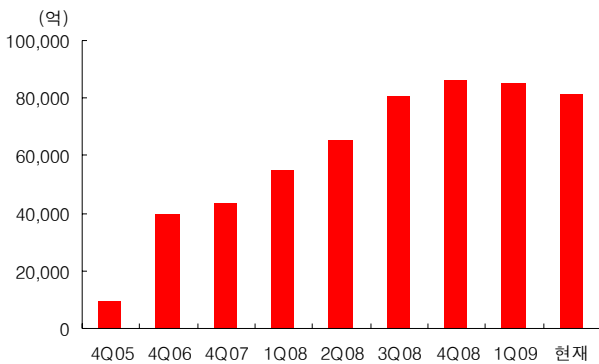
ETF 투자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더불어 높은 운용 성과이다. 국내 ETF의 역사가 아직은 길지 않아 성과를 성급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국내 ETF 시가총액 2009년 6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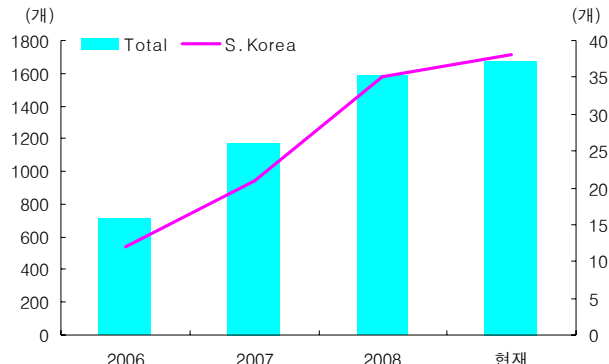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KRX

국내 인덱스펀드 규모(ETF 포함)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한국펀드평가

상장된 ETFs 수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KRX, Barclays Global Investors

### 3. 전세계 ETF 수수료(Fee) 비교

전세계 ETF 수수료, 최빈값(Mode), 비용비율(Expense Ratio)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세계 ETF 수수료(Fee) 평균				
	ETF 수수료 (Fund Manage Fee)	가장 빈도 높은 수수료 (Fee Mode)	해지 수수료 (Redemption Fee)	비용 비율 (Expense Ratio)
<b>북미/남미 ETF</b>				
캐나다	0.76	1.15	N/A	0.80
미국	0.45	0.50	0	0.56
브라질	0.46	0.54	0.0125	0.06
멕시코	0.14	0.30	0.0017	0.42
네덜란드령 안틸제도	1.00	1.00	0.25	0.25
페루	0.65	0.50	N/A	N/A
<b>유럽 ETF</b>				
오스트리아	0.90	0.90	N/A	0.90
핀란드	0.17	0.17	N/A	0.18
프랑스	0.47	0.60	2.55	0.42
독일	0.42	0.50	0.49	0.39
그리스	0.32	0.38	N/A	N/A
헝가리	0.50	0.50	N/A	N/A
아이슬랜드	0.70	0.70	N/A	0.40
아일랜드	0.47	0.49	0.15	0.44
Jersey (영국령)	0.75	0.98	0	0.48
룩셈부르크	0.36	0.25	1.60	0.47
노르웨이	0.30	0.30	N/A	0.30
슬로베니아	0.50	0.50	3.00	1.38
남아공	1.00	1.00	0.67	1.30
스페인	0.34	0.55	N/A	0.40
스웨덴	0.48	0.60	2.00	0.41
스위스	0.57	0.49	0.09	0.56
터키	0.60	0.95	N/A	0.80
영국	0.63	0.75	N/A	1.36
<b>아시아 태평양 ETF</b>				
호주	0.23	0.28	N/A	0.44
중국	0.50	0.50	0.50	0.33
홍콩	0.56	0.99	0.18	0.84
인도	0.78	1.25	0	0.83
인도네시아	0.50	0.50	N/A	0.70
일본	0.36	0.32	0	0.23
말레이시아	0.33	0.50	N/A	0.58
뉴질랜드	0.71	0.90	0	0.71
싱가포르	0.45	0.65	N/A	0.51
한국	0.45	0.46	0	0.31
대만	0.39	0.40	1.00	0.39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Bloomberg, 각사 Home page

주: 비용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국가 제외, 2009년 5월말 기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글로벌 ETF 시장의 자산 규모 순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었다. ETF가 가장 처음 소개된 미국과 서구 유럽지역의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경우 ETF 수와 ETF가 상장된 국가는 적었다.

자산 규모 상위 국가 ETF 수수료가 평균 0.42% ~ 0.63% 수준을 나타냈고, ETF 수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수수료율도 0.5% 이상에서 형성되었다. 자산 규모 하위 국가 ETF 수수료는 평균 0.45% ~ 1.00% 수준을 나타냈고, ETF 수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수수료율도 0.6% 이상에서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저렴한 수수료의 상품이 많았고, 반대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경우 수수료에서 불리한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헤지수수료 측면에서 보면(주: 일부 ETF 경우 ETF를 헤지하기 위한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가 존재. 그것을 헤지수수료로 표기) 특정 국가의 경우 평균 3%에 달하는 비용을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ETF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헤지수수료 수준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 프랑스의 경우 헤지수수료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였다.

또 한가지 ETF에서 주목할만한 지표는 비용비율(Expense Ratio)이다. 비용비율은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연율화 한 것인데 영국을 제외하고 ETF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전반적으로 비용비율이 낮다는 것은 해당 ETF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수수료가 타 펀드에 비해 저렴할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국이 타국에 비해 비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물상품(Commodities)과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통 실물상품(Commodities)의 운용 비용이 주식(Equity)이나 채권(Bond)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은 특히 ETF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거래소 차원에서 원자재 ETF 상장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ETF 수수료 평균이 0.45%로 자산 규모 상위 국가 ETF 수수료와 견주어도 크게 비싼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비율 역시 평균 0.31%로써 오히려 타국가 대비 낮은 비용 사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적어도 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ETF도 이미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수수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주식형 ETF와 실물상품 ETF, 채권 ETF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을 예로 들어 국내 ETF와 미국 ETF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4. 미국과 한국의 주식형 ETF 수수료 비교

미국과 한국의 ETF 수수료를 비교해 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샘플링을 시도하였다. 첫째, 국내 ETF에는 주식을 이용한 상승형 ETF만이 존재하므로 미국의 ETF들 중에서도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ETF를 선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수 상승분에 역행(Inverse)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나 레버리지(Leverage)를 이용하여 상승분의 2~3배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ETF들을 제외하였다. 셋째,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The ETF Book 및 Portfolio Solutions, LLC사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타입, 대상주식의 선택 및 대상주식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ETF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고 : 해당 인덱스 전략 박스(Index Strategy Boxes) 투자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사가 2008. 10. 1 발표한 'ETF는 진화하고 있다!' , 이종호, 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총 304개의 ETF가 분류되었으며 각각 3개의 증권 선택 방법에 따라 그 펀드의 숫자를 계산하였다. 총 9개의 전략 박스로 그 펀드들의 분포를 보여준 것이다. 수동형(Passive) - 시가총액식(Capitalization)이 가장 많은 124개를 차지하였으며 계량형(Quantitative) - 고정된 비중식(Fixed Weight)도 78개나 분류되었다. 계량형 숫자가 분류형보다 많은 것은 전략 인덱스를 쓰는 ETF들이 종종 시장 인덱스를 따르는 ETF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고정된 비중식이 펀더멘털식보다 많은 것도 운용에 있어서 고정된 비중식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식 매수형 U.S. ETF의 숫자

인덱스 전략 박스 방식을 사용한 주식 매수형 U.S. ETFs의 숫자				
계량형 (Quantitative)	85	5	2	78
분류형 (Screened)	59	26	18	15
수동형 (Passive)	160	124	14	22
	304	155	34	115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털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ETFGuide.com, IndexUniverse.com

각각의 인덱스 증권 선택과 증권 가중 방법에 따라 304개를 분류시킨 다음, 각 증권 선택과 증권 가중 전략에 따른 ETF 수수료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리고 나서 각각 9개의 인덱스 전략 박스의 평균 수수료를 계산했다.

평균 수수료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의외로 큰 폭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ETF 중 기본적으로 시장 인덱스를 따르는 시가총액식 ETF 는 연간 평균 0.3%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 증권 시장의 기본 베타 노출도(Exposure)가 평균 0.3%의 비용이 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섹터 및 스타일을 분류하면서 동시에 분류나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ETF 의 최고 수수료 평균은 0.65% 였다. 즉, 시장형 ETF 와 전략형 ETF 는 2배 이상의 수수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증권 선택 방법과 증권 가중 테크닉이 더욱 복잡해 질수록 그런 인덱스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다루기 위한 ETF 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인덱스의 복잡성과 ETF 관리비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U.S. ETF : 인덱스 전략에 따른 평균 수수료

인덱스 전략에 따른 평균 수수료				
계량형 (Quantitative)	0.64%	0.60%	0.60%	0.65%
분류형 (Screened)	0.47%	0.47%	0.38%	0.58%
수동형 (Passive)	0.34%	0.30%	0.57%	0.45%
		0.34%	0.48%	0.60%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탈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ETFGuide.com, IndexUniverse.com

국내 ETF 들을 인덱스 전략 박스 방식을 이용하여 분류해 보면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ETF 들은 시가총액식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는 미국과 다를 것이 없으나 기대와 달리 상당수의 ETF 들이 분류형(Screened) 증권을 선택하였다. 또한 펀더멘탈식(Fundamental)의 증권 가중 테크닉을 사용한 ETF 는 전무했다.

우리나라 지수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고정된 비중식 ETF 가 처음 발매된 것도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방식 ETF 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결과는 더욱 흥미로운데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동형 - 시가총액식 ETF 들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였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미국의 평균 0.3%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0.42%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계량형 - 시가총액식 방식의 경우 미국은 평균 0.60%의 수수료를 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평균 0.47%를 기록하였다.

결국 요약하자면 미국과 전반적인 수수료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수수료의 고/저 폭이 작고 증권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데 대한 프리미엄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증권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의 기복이 심하였고 고정된 비중식의 ETF에 조금은 과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과거 외국 ETF에 비해 국내 ETF들의 수수료가 비싸고 그 성과가 명확하지 못해 투자대상으로써의 선택이 어렵다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이며, 국내 투자자 역시 국내 ETF를 선택하는데 있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국내 ETF 분류

전략 유형	ETF 수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탈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계량형 (Quantitative)	8	8		
분류형 (Screened)	21	20		1
수동형 (Passive)	9	9		
		37		1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탈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ETF : 인덱스 전략에 따른 평균 수수료

전략 유형	평균 수수료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탈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계량형 (Quantitative)	0.47%	0.47%		
분류형 (Screened)	0.46%	0.46%		0.45%
수동형 (Passive)	0.42%	0.42%		
		0.46%		0.45%
		시가총액식 (Capitalization)	펀더멘탈식 (Fundamental)	고정된 비중식 (Fixed Weight)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 5. 결론 - 국내 ETF 경쟁력은 충분하다

ETF는 그동안 저렴한 수수료 체계, 손쉬운 접근성, 다양한 투자대상의 확대 가능성 등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최근 개발된 실시간 국고채지수(MKF TBD)는 앞으로 채권 ETF 상장 기대감을 한껏 자극하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중요한 점은 국내 ETF 시장 규모 증가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현재 국내 ETF의 글로벌 시장내 자산 규모는 22억 US\$ 수준으로 아직은 그 절대금액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 가능성은 확대되어진 상황이다.

ETF 투자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다른 펀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더불어 높은 운용 성과일 것이다. 국내 ETF의 역사가 아직은 길지 않아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ETF의 수수료는 글로벌 ETF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전체 수수료 평균은 0.45%로 동일하였다. 미국과 전반적인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수수료의 고/저 폭이 작고 증권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데 대한 프리미엄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였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증권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의 기복이 심하였고 고정된 비중식의 ETF에 조금은 과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과거 외국 ETF에 비해 국내 ETF들의 수수료가 비싸고 그 성과가 명확하지 못해 투자대상으로써의 선택이 어렵다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이며, 국내 투자자 역시 국내 ETF를 선택하는데 있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가 해외 ETF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환 헤지(Hedge)비용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한다는 점도 지금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ETF를 투자하는데 있어 국내 ETF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참고해야 할 것이다.